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진흥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개최

제1차 전기진흥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개최… 주요 전기산업계 기업 참여
노후 시설 개선 및 회원사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 논의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이상호, 이하 '진흥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기진흥회관에서 「제1차 전기진흥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회관 건립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1990년 설립 이후 전기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 기술개발 · 표준화 · 수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해 온 진흥회는, 새 회관을 산업계 · 정부 ·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 협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에는 LS ELECTRIC㈜,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파워맥스, ㈜우진기전, ㈜비츠로테크 등 국내 전기산업 대중소 리딩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상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기진흥회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조성을 넘어 전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회원사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원활한 회관 건립 추진을 위해 ㈜파워맥스 장세창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추진 방향과 재원 조달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세창 위원장은 "진흥회관이 전기산업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진흥회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사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재무적 안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전기산업계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립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창립 43주년, "조합원 중심 혁신으로 지속 성장 실현할 것"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이 창립 43주년을 맞이해 조합원 중심 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새 도약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조합은 지난 1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창립 제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백남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43년간 조합은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며 눈부신 도약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오늘날 1만 8천여 조합원과 2조6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갖춘 초우량 전문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조합원의 신뢰와 성원이 든든한 힘이 되었고, 임 · 직원의 책임감과 열정이 조합 발전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금도 '조합원을 위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조합원 중심 혁신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주요 경영 성과로 △2025년 당기순이익 역대 최고치 달성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의무보험) 법제화 실현 △공제 직접수행 확대 △신용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백 이사장은"앞으로도 조합원과 조합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을 품고 역량을 결집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행력으로 지속 성장의 미래를 펼쳐가야 한다"며 "임 · 직원 모두가 뜻을 모으고 협력한다면 조합은 앞으로 더 높은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미경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국장, 송인광 안동시 경제산업국장, 이형주 전기공사협회장, 장덕근 전기신문사 사장, 신한운 조합장학회 이사장, 박길호 엘비라이프 사장 등 내빈과 임 · 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와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 개최

에너지전환 지원 · 시장개편 확대 등 협력 방안 논의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는 지난 22일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회장 이영기)와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를 열고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이하 수요자원시장)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요자원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자 및 참여고객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계통 · 시장 운영과 고객만족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전력거래소는 기관장 간담회를 포함해 연 5회 이상 수요관리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력거래소는 수요자원 프로그램들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한 운영 및 제도 개선 실적도 함께 소개했다.

이어 양 기관은 봄 · 가을 경부하기 대응 현황과 수요자원 활용 · 고도화 방안 논의, 전력시장 개편 동향을 공유하였다.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수요감축 · 증대형 신규 수요자원 발굴 · 실증, 수도권 · 광주 · 전남 등 주요 지역의 수요자원 확대 방안도 함께 다뤘다.

이와 함께 협회 질의사항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통채널 강화와 의견수렴 방안, 기업 · 국민들을 위한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홍보 및 참여고객 지원 강화 등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전력거래소 김성진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계통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수요자원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요관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Pnews 전력신문 The Korea Electric Power News
발행 · 편집인 신홍주 인쇄인 배성한
社 是 / 범전력계 대변지 역할 · 전력계 역사성 정립에 기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길 38 대표전화 02-561-3524
광고문의 · 구독신청 02 - 561-3524 FAX 02-522-0130
2001년 10월 25일 창간 〈주간〉 2001. 09. 24. 등록번호 서울 다 06818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구독료 한달 7,000원 / 1년 84,000원

한전기술 · 도화엔지니어링,글로벌 경쟁력 제고 · 해외사업 협력 MOU 체결



한전기술(사장 김태균)은 23일 ㈜도화엔지니어링(회장 박승우, 이하 '도화')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사업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LNG복합, 수력 및 양수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 교육 · 기술교류 ▲해외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및 EPC 사업 개발 · 수행 ▲양사의 해외 법인과 지사를 활용한 현지 공공 ·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한다.

한전기술은 발전플랜트 설계와 EPC,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공하고, 도화는 해외 프로젝트 개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한전기술의 사업 수행 역량과 도화의 사업개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에너지 시장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사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협력과제와 해외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해외 사업은 기술력뿐 아니라 현지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업개발 역량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화와 사업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해 한전기술의 해외사업 수주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본회는 송변전 전력시설물의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제도개선을 시행하며,
나아가 회원상호간에 적극적인 협조로 송변전감리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 장 홍문엽 (㈜진광엔지니어링) 위 원 전덕배 (㈜주신엔지니어링)
감 사 김지혜 (티앤제이 건설주식회사) 〃 이봉희 (정인엔지니어링)
선임위원 신태우 (㈜화신파워텍) 〃 이영길 (㈜대림엠이씨)
위 원 김기철 (㈜서전종합전기) 자문위원(전 회장단) 장석한 (㈜프로텍타코리아)
〃 최재천 (㈜자람앤수엔지니어링) 박기문 (㈜부영이엔지)



송변전감리협의회(TSSC)
Transmission & Substation Supervision Conference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731(3층)
관련문의 : 010-3768-2671 www.tlss.kr